

# PEOPLE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 이춘구 코레일 광주본부장 취임

### 현장중심 안전프로세스 정립

신임 이춘구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사진)이 23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광주 송정역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을 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 본부장은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물류사업본부, 인사노무실, 기획예산처, 전략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감사실장을 역임했다.

이춘구 본부장은 “안전한 철도 구축은 코레일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뢰자산으로 현장중심의 안전프로세스를 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고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코레일 광주본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 농협 전남본부

### 나주 딸기농가 영농현장 지원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나주시 오랑동 딸기 재배 농가에서 ‘범농협 한미농 농촌일손 집중 지원의 날’ 행사를 열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을 비롯해 이석재 운남농협 조합장, 문홍열 마한농협 조합장, 정혜숙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장, 신금숙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회장,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참여자들은 5795㎡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수확을 마친 딸기 모종과 배지를 수거하고 재배시설을 정비하며 귀농 농가의 작업을 지원했다. 특히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전남쌀로 만든 가래떡을 준비해 인근 독거노인과 취약농가에 전달하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범농협 농촌일손 집중 지원의 날’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20일을 집중 지원일로 지정해 전국의 농협 임직원들이 일제히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 전남본부는 이 기간 동안 양파·블루베리·매실·감자 수확 및 시설하우스 절기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해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 서부경찰,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광주 서부경찰이 지역 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발을 견뎠다.

23일 서부경찰 상무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마약·도박·디지털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동체 치안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부경찰,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상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상무지구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 GS칼텍스, 16년째 지역아동 사랑 실천

2010년부터 ‘희망에너지교실’ 운영...문화·예술 교육 위해 세계적 무용단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협업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최근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2025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 여름 지역 아동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발대식에는 윤경희 여수시 여성가족과장, 배수봉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보람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예술감독, 김중은 GS칼텍스 대외협력팀 상무, 박필규 GS칼텍스 예술마루 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배수봉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16년간 이어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은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성과 사랑을 대변해주는 프로그램이다”며 “희망에너지교실을 통해 여수지역 아동들이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희망에너지교실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무용단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협업, 엠비규어스와 함께하는 ‘몸에서



2025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필규 GS칼텍스 예술마루 관장, 배수봉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보람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예술감독, 김중은 GS칼텍스 대외협력팀 상무, 윤경희 여수시 여성가족과장

춤으로!’라는 창의적 신체 표현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희망에너지교실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은 GS칼텍스 여수공장 견학과 예술마루 전시 관람을 통해 지역 사업현장을 체험하

고 예술적 시야를 넓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올해 프로그램은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고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서 선발된 50명의 아동이 참여한다”며 “프로그램의 결실은 8월 9

일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열리는 발표회를 통해 선보이며, 참여 아동들은 직접 창작에 참여한 ‘엠비규어스와 함께하는 ‘몸에서 춤으로!’ 공연을 통해 큰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

## 켄텍, 대통령과학장학금·독일 파견 등 학부생 잇단 쾌거

### 에너지공학부 정자윤·한서진 학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학부생 2명이 대통령과학장학금과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장학생에 잇따라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로는 에너지공학부 3학년 정자윤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장학금은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국비 장학 프로그램이다. 매년 학업 성적, 과학 활동, 성장 가능성, 봉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국내·외 이공계 대학



정자윤

한서진

생 약 150명을 선발하며, 이 중 3학년 재학생은 전국에서 약 60명만 뽑힌다. 장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학업 장려비가 지원된다.

정자윤 학생은 “2023년 대한민국인재상에 이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돼 기쁘다”며 “연구과정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도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같은 학부 3학년 한서진 학생은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장학생으로 선발돼 오는 9월 독일 작센안할트주 할레(Halle)의 Fraunhofer IMWS 연구소에 6개월간 파견돼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MPK)가 주관하며, 선발된 학생은 독일 현지 연구소에서의 실질적 연구 참여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융합적 연구 역량을 키우게 된다. 항공

로, 체재비, 보험료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2015년 시작된 이래 누적 파견 학생 수는 136명에 달한다.

한서진 학생은 ‘수소 공정의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연구에 참여하며, KENTECH 내 HYLOT (Hydrogen Liquefaction Optimization Technologies) 연구실에서의 학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지난 2년간 논문 작성과 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이번 선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수소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지현 켄텍 교수는 “학부생들이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광주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일반 시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학교폭력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협력 방안 모색·소통의 장 마련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광주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일반 시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학교폭력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예방적 역할과 학생 보호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기획됐다.

행사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주제 강연 △표창원 소장 및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주제 강연’에서 표 강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예방 정책 공유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표 강사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률에서 규정된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권한이 수반되지 않은 한계가 있고, 광범위한 역할에 따른 업무 부담과 학교와의 역할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실질적 조치 권한 및 준교육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담당 학교 수 축소·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부 토크 콘서트’는 김의성 변호사 진행하에 표창원 소장·교원·교육 전문가·학부모·경찰 대표 등이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및 현황,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간 협업,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방안, SPO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금만 율봉중 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면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학교에서 신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정기적 학교 방문을 통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주 광주경찰청 총경은 “지역별 학교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연수가 아닌 청소년 심리 상담·회복적 사법·학부모 소통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경찰·학교·교육청·지자체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생활지원로봇지원센터에서 ‘새정부 과학기술, 그리고 광주’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광주TP ‘새정부 과학기술, 그리고 광주’ 세미나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생활지원로봇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새정부 과학기술, 그리고 광주’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지역과학기술 기반 강화와 광주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조인철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참석,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지역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조인철 의원은 “광주는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는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AI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하며, 지역 맞춤형 R&D 투자 확대, AI 전문인력 유입과 정착 지원, 산학연 협력 모델 고도화,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광주TP 원장은 “AI산업과 미래차, 에너지 등 전략분야에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인력-기업의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아이디어 회의 광주시 동구는 23일 상항실에서 더 나은 인문축제를 위한 아이디어 나눔 회의를 열고 제3회 무등산 인문축제에 대한 부서별 평가, 제안,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